

우선 '우수 고전번역서 목록' 이라도 만들자

대우재단 주최 세미나 <고전번역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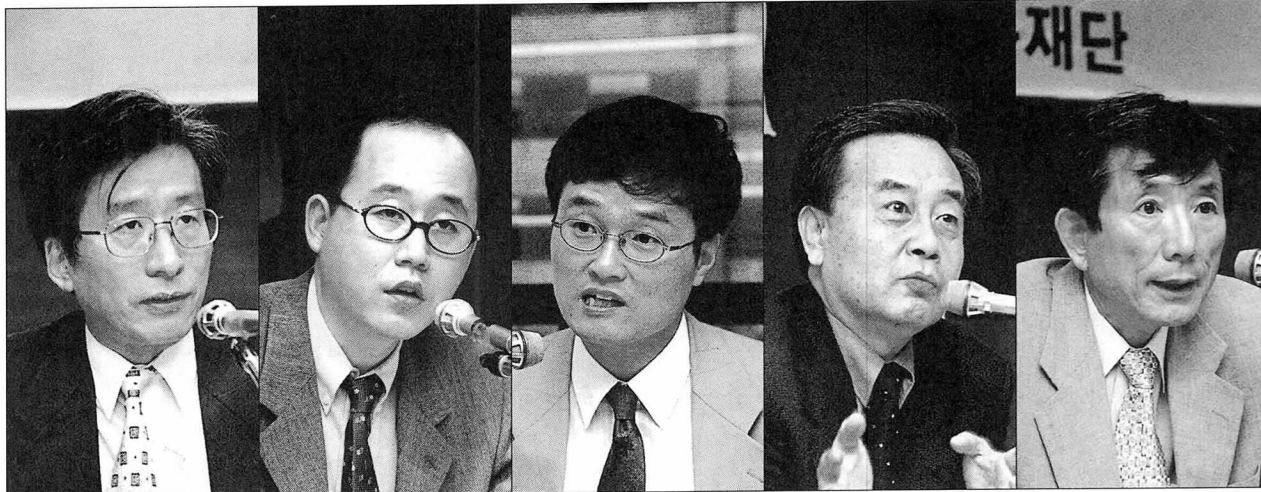
“고전 번역자의 부족, 영세출판사의 상업주의, 고전번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등이 고전을 번역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선진국으로부터 학문수입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번역은 학문발전의 가장 튼실한 주춧돌이다. 시공을 넘어서 늘 새롭게 보편적 의미를 가지로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고전 번역이야말로 학문발전을 이루는 깊고너른 뿌리인 셈이다. 지난 9월16일 대우재단(이사장 이석희)이 <고전번역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는 고전번역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그 방법론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 진지한 자리였다.

신일철 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수(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고전의 정의 및 고전 번역의 필요성>을, 이현복(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국내 고전번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데 이어, 박은진 한국학술협회의 간사의 <고전번역서의 의미>, 출판평론가 이중환씨의 <고전번역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부 및 재단의 역할>, 장희익(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고전번역의 연구업적 인정현황 및 방향> 등 다섯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부적절한 번역자와 졸속출판

서론적으로 발표된 이태수 교수의 논문은 고전의 개념에 대한 정의로 시작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 문화권 특유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의미는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교수가 밝힌 키케로의 <아카데미> 딜레마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희랍에서 시작된 어려운 철학 문제를 주제로 라틴어 저술을 하는 데 대해, 그런 수준 높은 철학문제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이미 희랍어 원전을 읽었을 것이며, 희랍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철학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을 테니 라틴어 저술은 쓸데없다”는 딜레마다. 오늘날에도 이



왼쪽부터 이태수·이현복·박은진·이중환·장희익씨.

런 딜레마는 적지 않다. 하지만 키케로가 라틴어로 희랍철학을 번안한 저술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언어의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말하고 철학활동을 하는 일은 이런 딜레마의 극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딜레마 극복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현복 교수가 지적한 국내 고전번역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서양의 고·중세·근대 철학의 원전 대부분이 번역돼 있지 않다.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크게 번역자의 부족, 영세출판사의 상업주의, 고전번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등을 꼽는다. 양적으로 고전번역이 적은 데다 출간된 고전의 질도 문제다. 고전번역서 대부분 중역을 하고 있으며 번역자의 역량부족과 불성실로 인해 오역 내지 우역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를 걸러야 할 출판사에는 해당언어와 분야에 전문식견을 가진 편집자가 없어 교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부적절한 번역자와 졸속출판이 저지르는 오역·우역, 난삽한 번역은 점차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독자층의 외면을 낳아 고전에 대해 무관심을 초래하여 고전을 번역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전이 번역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박은진 간사는 또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학계의 아픈 곳을 짚었다. 흔히 “고전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당위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우선 서양고전을 읽는 이들은 주로 대학생들인데, 과연 강의실에서

고전이 억지로나마 읽히고 있는지 묻는다. 교수들은 번역된 고전은 제쳐두고 원전강독에만 힘을 쏟는다. 교수들은 이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거나 읽지도 않는다. 교수들의 논문에는 원어로 된 문헌들만이 무수히 인용되곤 하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현상을 박은진씨는 “좁게는 대학의 문제이나 더 넓게는 우리 교육현실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파악한다.

연구번역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고전을 많이 소화해야 할 대학의 번역에 대한 인식부족은 장희익 교수의 지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장교수는 ‘연구번역’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본적으로는 대학에서 ‘연구번역’을 인정,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교수는 현재 한국대학에서 번역서 한편의 연구업적 비중이 저서나 논문 한편에 비해 엄청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대학별로 수치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다.

번역된 고전을 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단초가 된다고 할 때, 이중환씨는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완벽한 고전 텍스트를 성실히 선정, 확실하게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도서선정 기능과 도서구입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우수학술지원제도 등으로 도서구입비가 확충돼가고 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문제가 많다. 현재 번역의 질을 점검하고 선정하는 데 용기 있게 나설 이가 과연 얼마

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번역상 제도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인장주의적 파벌적 행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준 높은 번역의 질을 지향하도록 저널을 발행해 객관적 기준을 점차 만들어어나가는 방법, 현재 간행돼 있는 고전번역서의 목록이나 꼼꼼히 점검하고, 우수 번역선정 추천작업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고전의 엄숙주의 벗어

토론자들 역시 번역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지정토론자 강정인(서강대 정치학과)교수는 번역이 계승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현실을 지적했으며, 최원식(인하대 국문과) 교수는 선조들의 번역태도를 살피면서 학계풍토부터 근본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역가 김동광씨는 대중으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못하는 고전의 엄숙주의를 질타하면서 “고전을 읽지 않는” 대중들의 태도를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엄숙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비록 ‘서양고전’에만 국한된 논의이긴 했으나 문제점을 솔직히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이날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기가 식지 않았다. 현재 나와 있는 번역서에서만이라도 그 질을 가려 ‘우수 고전번역서’ 목록 하나쯤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 이뤄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 — 김지원 기자